

# 격조와 성찰... '명문장의 숲' 일궜다

타계한 평론가 황현산의 삶과 문학  
신안·목포서 유년시절 보내  
'어린왕자' 등 프랑스 작품 다수 번역  
'밤이 선생이다' 열풍 '아이돌' 애칭  
암 말기에도 활발한 집필 활동



지난 2015년 2월 광주일보 문화매거진 '예향'과의 인터뷰 당시 황현산 평론가가 포즈를 취한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신안에는 섬이 가지고 있는 다도해 정서가 있어요. 섬 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력과 맑은 문체를 익히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오지 마을인 신안의 말을 터득했고, 세계적인 보편적인 불어를 배웠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두 언어의 충돌과 조화현상에 대한 생각, 거기에서 나온 상상력은 언어, 번역이론의 밑바탕을 이루다시피했어요. 어릴 적 고전읽기는 문장의 박자감, 리듬, 운율을 익히는데 도움이 됐고 불문학의 명문장을 번역하면서 익힌 말들이 어우러져 제가 쓰는 문체가 됐습니다."

8일 별세한 황현산 문학평론가는 지난 2015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2월호·통권232)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고인을 수식하는 말은 다양하다. 프랑스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 시를 한국에 소개한 번역가, '문단의 조용필', '팬덤을 형성한 평론가' 등.

1945년 목포에서 태어나 문태고를 졸업했던 고인은 초등학교는 신안에서 나왔다. 그에게 고향이 신안과 목포 두 곳인 것은 그 때문이다. 황 평론가의 언어는 신안 비금도와 목포에 '젓줄'을 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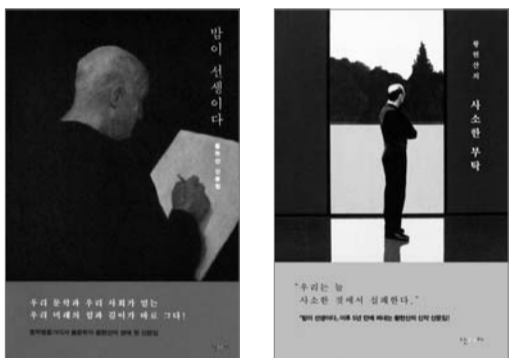
그는 생전에 고향 이야기를 글로 많이 남겼다. 지난 2014년 신안 특산 '홍어'를 주제로 글을 쓴 인연으로 고향 인사로부터 홍어를 선물 받은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화다.

황 평론가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 (2013년)는 격조와 품격을 아우른 문장과 번뜩이는 사유가 담긴 책이다. 수많은 섬들과 푸른 파도,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은 그에게 문학적 감수성과 사유를 갖게 했을 것이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의 성찰이 돋보이는 명문장들을 만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든 눈앞의 보자기만한 시간이 현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든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당했던 고통도 현재다. 미학적이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지닌 감수성의 질은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 가늠될 것만 같다."

'밤이 선생이다'라는 제목이 말해듯 그는 낮과 밤이 뒤바뀐 삶을 살았다. 40여년의 시간을 새벽까지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오전에 일이나 일상을 시작했다. 물론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려대 불어불문학과에 진학한 뒤 가정형편 탓에 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 공부하던 일상이 습관으로 굳어진 거였다.

그가 '밤이 선생이다'를 펴낼 때 문인들은 SNS에서 글을 퍼 날랐다. 평론가가 산문집으로 당시 15쇄를 찍은 것은 이례적이었는데 출판계에서는 '아이돌 음반처럼 책이 팔렸다'며 황 교수를 '문단의 아이돌'이라 불렀다.



황 교수는 "비평보다 산문이 인기를 얻어 당황스럽기는 하다. 동료 비평가와 제자들은 대중에게 영합하는 글 쓰는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며 미소 띤 얼굴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인문학 티를 내지 않았으나 인문학 내용과 사유가 들어있어 까다로운 글이다.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 쉽게 접근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쉽게 쓴 글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학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공모에 지원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그는 "문화예술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금지"라며 임직원에게 문화예술 지원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취임 후 두 달 만에 암이 재발하면서 위 원장직을 사임해야 했다. 병세가 나빠진 와중에도 고인은 산문집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과 번역서 '말도 모르는 노래' 등 두 권의 책을 펴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문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물어왔다. 특히 먼 나라의 문학 일 뿐인 프랑스 문학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늘 고뇌해왔다. 내가 나름대로 어떤 슬기를 얻게 됐다 면 이 질문과 고뇌의 덕택일 것이다." ('사소한 부탁' 중에서)

책 제목인 '사소한'이라는 단어 뜻과 달리 내용은 알맹이로 가득차 있다. 저자는 '한글날에 쓴 사소한 부탁'이라는 글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올려놓을 것과 '한컴오피스 한/글'의 맞춤법 검사 기능을 섬세하게 다듬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부탁한다.

"언어는 사람만큼 섬세하고, 사람이 살아온 역사 만큼 복잡하다. 언어를 다루는 일과 도구가 또한 그러해야 할 것이다. 한글날의 위세를 엮고 이 사소한 부탁을 한다. 우리는 늘 사소한 것에서 실패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무등산 파수꾼' 박선홍 1주기 '북 콘서트'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무등산', '광주 1백년 1. 2. 3' 저자인 고(故) 박선홍 선생은 광주에서 태어나 평생을 광주에서 살았던 분이다. 최초로 무등산을 시민이 가꾸고 보호하자는 취지의 무등산 보호운동을 이끌었으며, 광주민학회 이사장으로 향토사 발굴과 보존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 박선홍 선생 박선홍 선생 저서들

광주문화재단은 9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故 박선홍 선생님 추모 1주기 & 광주학 콜로키움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학의 주춧돌을 놓은 선생의 뜻을 되새기기 위한 후학들이 헌정 자리다.

생전의 선생은 광주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집적돼 지역학으로서 '광주학' 연구가 본격화되기를 염원했다.

북 콘서트는 황용현 전라도 닷컴 편집장의 진행으로, 광주학 콜로키움 운영위원장을 이끌어온 전남대 천득엽 교수와 필진으로 참여한 김기근 광주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유영국 지오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행사는 선생의 장남인 박상철 교수(전남대 연

구석좌교수)의 부친을 기리는 대담과 영상 상영으로 시작된다. 이어 현악 4중주단 '땀'이 선생이 평소 즐겼던 동요와 솔베이지 노래를 연주한다.

한편 재단은 8월 지난 3년간 콜로키움 성과를 모아 '광주학의 기원과 역사 찾기'를 출간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종범 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필진이 함께해 광주학에 대한 개념규정과 과제, 광주의 기원과 호남문화의 상징 등 광주를 바라보는 열 가지 시선을 다뤘다. 문의 062-670-743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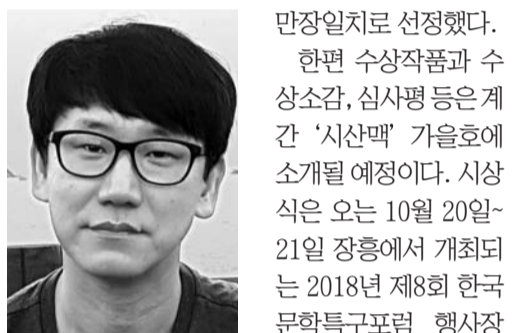
# '정남진신인시문학상'에 최재훈 시인 선정

제3회 정남진신인시문학상에 제주 출신 최재훈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가방' 외 4편.

2016년에 제정된 정남진신인시문학상은 장흥문화원과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장흥군과 한국문학특구포럼추진위원회가 주최한다.

심사위원들은 최재훈 시인의 작품에는 "현대 시의 경향이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런 트렌드와 다르게 자기만의 발성법을 지니고 있다"고 작품을 평했다.

이번 예심은 기 수상자인 강주 시인, 김경린 시인, 성금숙 시인이 맡았으며 본심에 광주 출신 김병호(협성대 교수) 시인이 참여해 최재훈 시인을



최재훈 시인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한편 수상작품과 수상소감, 심사평 등은 계간 '시산맥' 가을호에 소개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0일~21일 장흥에서 개최되는 2018년 제8회 한국문학특구포럼 행사장인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린다. 문의 010-

8894-87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목포 만호동·유달동 일대 '등록문화재' 됐다

근대역사 흔적...군산 장미동 포함

옛 모습을 간직한 목포, 전북 군산의 원도심 역사공간이 등록문화재가 됐다.

지금까지 등록문화재는 건축물이나 서적처럼 점(點) 단위로 이뤄졌으나,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 선과 면(面) 단위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선(線)과 면(面) 단위 사례가 나온 것이다. 선(線), 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은 보존관리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근대문화유산은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문화재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을 각각 제718호와 719호로 고시했다. 8일 밝혔다.

역사공간 내 개별 문화재는 목포 15건, 군산 5

건이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목포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038㎡를 아우른다. 조선시대 목포의 시작을 알리는 '목포진지'를 비롯 '구 목포 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다.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은 장미동 일원 15만2476㎡가 해당된다.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수탈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밖에 경북 영주 원도심 역사공간도 문화재로 등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